

[표ID-25] The 3rd Korea-Japan Young Astronomers Meeting 2009
(KJYAM2009)

이정애^{1,2}, 정의정^{1,3}, 이영대⁴, 서미라⁵, 김한성⁶, 하상현^{7,8}, 강선아⁷
¹한국천문연구원, ²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³경북대학교, ⁴충남대학교, ⁵부산대학교,
⁶연세대학교, ⁷국립과천과학관, ⁸충북대학교

젊은 천문, 우주과학자들의 모임(Young Astronomers Meeting, 이하 YAM)은 2009년 8월 19일~21일, 국립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 교육실에서 2박 3일 간 'The 3rd Korea-Japan Young Astronomers Meeting 2009'(이하 KJYAM2009)를 개최하였다. KJYAM2009는 한국과 일본의 젊은 천문, 우주과학자들의 활발한 교류와 연구 증진을 위하여 지난 2006년에 시작하여 경주에서 제 1회 KJYAM2006을, 일본에서 제 2회 KJYAM2007을 개최하였다.

KJYAM2009에서는 6편의 초청강연과 참석한 젊은 천문, 우주과학자들이 23편의 구두 발표와 5편의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초청 강연은 첫째 날 교원대 손정주 교수의 'Low mass star formation' 시작으로 둘째 날 서울대 Toshio Matsumoto 교수의 'Infrared Astronomy in Japan', 천문연구원 박병곤 박사의 '대형망원경 사업소개'가 있었다. 그리고 천문연의 조세형 박사의 'Korean VLBI Network and its key sciences', 천문연의 문홍규 박사로부터 'International Year of of Astronomy 2009 : Korean National Node Activities'가 이어 진행되었다. 셋째 날에는 과천과학관 이강환 박사의 'Dynamical Evolution of Globular Clusters in Tidal Field'이 있었다.

KJYAM2009에서는 다양한 경험도 제공되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립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 관람과 우리나라 광학망원경 중 두 번째로 큰 1m 망원경이 설치된 천체관측소도 견학하였다. 뿐만 아니라 젊은 연구자들의 모임인 만큼 자유 토론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여 KJYAM의 앞으로의 방향과 한-일 양국의 젊은 천문, 우주과학자들의 미래와 교류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 4회 KJYAM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더불어 2011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동아시아 젊은 천문, 우주과학자들의 모임(East Asia Young Astronomers Meeting, EAYAM)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